

어린이 책꽂이

▲KBS 대왕세종=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대왕세종의 면모와 업적을 그린 학습 만화. 장영실, 김종서 등 세종대왕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흑부리 할아버지=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요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육십쟁이 흑부리 영감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난 코를 갖게 된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신데렐라=못된 의붓 어머니와 언니를 밑에서 온갖 갖은 일에 시달리던 신데렐라가 결국 왕자님을 만나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다는 즐거운 이야기. 화방마차, 대모 요정, 유리 구두 등 환상적인 분위기의 그림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수확담정 매키와 누팡의 대결=수확담정 매키와 수확도둑 누팡이 펼치는 아슬아슬한 대결을 통해 수학적 이해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배울 수 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변형된 모습 등 숨겨진 도형의 비밀이 낱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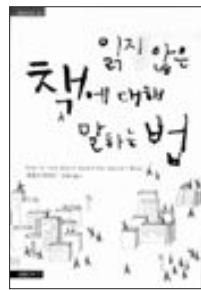
▲화가와 호루라기=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는 가족 이야기를 그린 동화.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파국파국하게 살아남은 어린이들의 꿈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유명 작가들의 게으른 독서 철학 소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피에르 바야르 지음

영화 '달콤 살벌한 여인'(2006년)의 주인공 미나(최강희 분)는 애인 친구들 앞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지 못해 창피를 당한다. 과연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읽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 파리 8대학 프랑스 문학 교수인 피에르 바야르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통해 '아니다'고 대답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은 1년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 한 달에 1권 꼴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간을 모두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기억력의 한계로 과거 읽었던 책 내용이 차츰 잊게 마련이다. 저자는 타인들과 대화 도중 자신이 읽지 않았

거나 혹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책을 내용당당히 말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책을 읽지 않고도 책에 대해 알은채하기 위해서는 '왜 책을 읽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아야 한다. 저자는 오스카 와일드, 폴 발레리 등 유명 작가들의 게으른 독서 철학을 소개한다. 또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책을 읽지 않고도 자신의 사상과 세계관을 말바탕으로 책에 대해 자신있게 토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는 내가 평문을 써야 하는 책은 절대 읽지



않는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오스카 와일드 "나는 수년 전에 언뜻 그의 작품을 엿보았을 뿐이다. 내가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글로 적힌 가치도 거의 없는, 읽지 않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폴 발레리 오스카 와일드와 폴 발레리는 남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면서 전혀 읽지 않거나 대충 훑어봤지만 뛰어난 비평문을 남겼다. 심지어 남의 이야기만을 듣고 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바스카빌은 다른 수도사의 말만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해했다. 이처럼 읽지도 않은 책에 대해 말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책이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유동적인 오브제(object)'(195쪽)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책을 통해 자기 얘기를 만들어 냈다고 소개한다.

일부 독자는 책에 빠져 자신의 세계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책)의 무게에서 해방된 독자가 자기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며 책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을 읽지 않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진정 한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읽지 않은 책이 화제가 됐을 때 '부끄러워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자기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알려준다. (여름인덱 9천800원) /오공북기자 kroh@kwangju.co.kr



저자는 단순히 책의 내용만을 기억하는 독자가 아니라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주 충장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 /위직망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재 전문가가 말하는 건축 이야기

내게 말을 거는... 임지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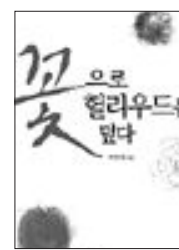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문화재 건물 전문가가 입체 지체가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을 펴냈다. 1부 '집 이야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꾸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독일인 남편, 아들과 함께 나는 환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2부 '도시 이야기'에서는 문화 예술의 도시 뮌헨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전혜린과 '압록강의 흐르다'의 이미리의 자취를 찾아가고 유럽 중세 건축도 소개한다. 마지막 3부 '현장 이야기'는 유적 발굴 과정에서 도면을 그리며 겪은 에피소드와 발굴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건축가의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겨레 출판·1만5천원)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할리우드 사교계의 파티문화 엿보기

꽃으로 할리우드를... 캐빈 리 지음

플로리스트나 파티 플래너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정치자금 후원회를 비롯해 브래드 피트의 결혼식, 오프라 윈프리의 점심 초대파티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티를 꾸민 사람은 바로 캐빈 리. 명실상부한 할리우드 최고의 플로리스트인 그는 꽃 배달부터 시작했다. '꽃으로 할리우드를 엿다'는 진부한 성공기와 다르다. 저자는 자신의 눈부신 성공이 있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가족과 함께 지난 79년 미국 이민 길에 오른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가 얻은 첫 직장은 바로 꽃집. 우여곡절 끝에 플로리스트가 된 이후 항상 새로운 작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같은 디자인의 꽃 장식을 하지 않았다. (오픈하우스·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호사카 유자의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조선의 임금 선조(宣祖)는 16세기 후반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문을 커녕 한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는 정말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흔히 조선은 선비,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위의 일화는 두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조선의 임금이 공부하는 임금 즉 학자군주였다면, 일본의 경우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 사무라이는 무사 중에서도 상급 무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의외의 승리를 거둔 직후 미국에 체류하던 기독교 신자이자 유명한 교육자였던 니토베 이나조는 "일본은 특정한 종교가 없는데 일본인의 도덕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서양친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무도'를 썼다. 거기엔 '무사는 주군에게 충성해야 한다', '무사는 도덕성과 수신을 해야 한다', '무사는 사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무사는 부귀보다 명예를 소중히 해야 한다' 등의 사무라이의 기본적 규범과 가치가 소개되고 있다.

붓과 칼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만, 니토베 이나조가 쓴 것대로라면 선비정신과 무사도는 거의 흡사하다. 위의 문장 중에 '무사'가 '선비'로 바뀐다고 해서 오해가 생길 정의는 없다. 제대로 된 선비나 무사는 불의를 경계했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바치면서 주군이 잘못했다

'개과천선' 日 사무라이들



고 생각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차이가 있다면, 선비는 사약을 받았고 무사는 활약을 한 것일까? 조선의 선비는 불교국가인 고려가 망하고 성리학에 바탕을 둔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생겨났다. 그들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인(聖人)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다.

반면 무사계급은 자신들의 토지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농민이나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된 황족이나 귀족이 지방에 눌러 앉으면서 생겼다. 공자가 주자를 경건으로 삼은 선비와 달리 사무라이의 사상은 주로 손자병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준비된 전쟁을 하라'던 손자의 가르침은 사무라이로 하여금 항상 자기 영지의 농업과 산업을 돌보게 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저자 호사카 유자는 '조선의 선비와 일본의 사무라이'(김영사)를 통해 사무라이를 무슨 대단한 '도(道)'로 여기는 일본인의 의식을 공박한다. 원래 옛 무사의 모습에서는, 무사도의 핵심이라고 설명되는 주군에 대한 윤리적 충성 의식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까지는 후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반행위는 비겁행위다', '무사는 주군과 생사를 같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때 납치된 조선 유학자들이 일본에 성리학을 전하면서, 무사의 사고방식에 일대 전환이 생겼다. 무사들이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여서 비로소 '선비가 칼을 차면 사무라이가 된다'는 의식이 생긴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과 메이지 유신은 물론 이후의 대만 출병과 정한론(征韓論)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라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 '전쟁국가'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라이식 국가경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할 수 없게 규정된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려 하지 않는가? (김영사·1만원) /장정일(소설가)



♣ 매매 및 교환 ♣ 전남 신도청양 일반 상업지, 숙박, 위탁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절충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 011-330-9365 (주인직)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 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대지500 건물1,300 한남병원직접 차입금 매대가 75억 •보통급 36억 월세3,100만원 (지역 최고급) 동지12억 매가180억 (토지, 교차로) ▶부동산 •보통급 매가 1,700만원 (신축) 동지18억 매가 34억 •부동산20억 월세4,000만원 동지18억 매가 185억 •보통급 매가 1,200만원 동지17억 매가 27억 ▶땅 (상무지구) •2,800㎡(950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류장) •450㎡(136평) 3.3㎡당 850만원(유류장)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영역지구) •3,553㎡(1,087)3.3㎡당900만원 (2단지) ▶(생동동)800세대 아파트입주7677㎡(266평) 3.3㎡당 350만원(유류장) ▶(동진동)3.3㎡당 350만원(2단지) ▶(동진동)3.3㎡당 112만원(신축) ▶(동진동)대지12㎡(155평)20M 도로면 3.3㎡당 265만원 ▶(동진동)3,760㎡(1,140평)평당402㎡ ▶병원·화원·수파·식당 기타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화동)고급주택구 •근린시설(병원, 화원, 목욕탕, 체육관) 1,652㎡(500평)3.3㎡당 700만원 (하남지구) •1,200㎡(360평)3.3㎡당 350만원 (병원, 화원, 식당, 체육관) (금호지구) •대지528㎡(160평)3.3㎡당 470만원 (주공)프로젝트 90(수영지구) 매가185억 ▶모델·호텔매매·사우나 •대지356㎡ 동지20억 매가285억 •대지333㎡ 동지19억 매가172억 •대지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185억 ★24시간 전화·문진·접수함·다시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입야』 18032㎡ 매 3.3㎡당 4만19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 집(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입야』 36023㎡ 매 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 집 『홍성읍 자연녹지 집중지』 9300㎡ 매 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임동 주가지역 8차선도로면 주공아파트 정문가 1번』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사 판매장, 물류창고, 사육 적합) 『충흥동 35m대로면』 대지920㎡ 한정식당2층 건물있음 매 9억5천만원 (고급식당, 사육, 물류창고, 전사 판매장, 케넬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식식 건물있음 매 2억5천만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청단지구 500평 200평 전동 28억 (보약 월2000만원) 골프 연습장(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1층 53평 58평 편의시설 40평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대)529-1408 ☎ 010-2466-1408 (전)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자산동 373-8 한일정문앞) 2008최신합본(광주·나주·순수·정평·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 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목 최신지적, 신규APT 수목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목, 나주승강장 스포츠터미널 수목, 송일택지개발 지구 기지변수목 ③ 순수 나주·순수리 남양유업수목, 정평·담양·북평매가 50만원 혁신도시 최종안 수목,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목 ④ 정평 혁신도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해제수목, 최신지적 수목, 보습지구 수목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해제수목, 최신지적 수목, 보습지구 수목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수목, 최신지적 수목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평·담양·순수·나주권 그린벨트 해제본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사연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하기 전 합본본과 전본 양본본에 한하여 힘을 들여 드리기 위해 50%세율을 단행하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시간] 09:00 ~ 18:00